

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성장해나가는 김현진입니다.



김현진 1997년 (26세/만 24세) | 여

✉ hj_time@naver.com

☎ 010-9588-6910

☎ 010-9588-6910

🏠 (58217) 전남 나주시 상야3길

🏷️ **핵심역량** ▪ 한전 KDN에서 파견직으로 퍼블리싱을 하고 있습니다.

학력사항	경력사항	희망연봉	희망근무지/근무형태	포트폴리오
대학교(4년) 졸업	경력 1년 4개월	3,000~3,200만원 (직전 연봉 : 2,950 만원)	서울전체 정규직	https://hjtime.github.io/Portfolio/

학력 최종학력 | 대학교 4년 졸업

재학기간	구분	학교명(소재지)	전공	학점
2016.03 ~ 2021.02	졸업	전주대학교 (전북)	스마트미디어	3.97 / 4.5
2013.03 ~ 2016.02	졸업	진경여자고등학교	특성화/마이스터고 (m-비즈니스)	-

경력 총 1년 4개월

근무기간	회사명	부서/직급/직책	지역	연봉
2021.03 ~ 재직중	오픈노트	UI/UX / 사원	전남	2,950만원
	🏷️ 담당업무 퍼블리셔			

자격증/어학/수상내역

취득일/수상일	구분	자격/어학/수상명	발행처/기관/언어	합격/점수
2020.11	자격증/면허증	정보처리기사	한국산업인력공단	최종합격
2017.03	자격증/면허증	웹디자인기능사	한국산업인력공단	최종합격
2016.09	자격증/면허증	컴퓨터활용능력2급	대한상공회의소	최종합격

포트폴리오/기타문서

파일 구분	파일명
포트폴리오	https://hjtime.github.io/Portfolio-HJtime/

자기소개서

[성장 과정]

저는 시도 때도 없이 교무실에 불러가던 학생이었습니다. 또는 다른 반 학생의 부름에 달려가기도 했습니다. 저를 부르는 이유는 단 한 가지. 컴퓨터로 하는 일을 부탁하기 위함이었습니다. 고등학생 시절부터 저는 컴퓨터 관련 분야에 진학하겠다는 말을 하고 다녔고, 그 덕에 자연스럽게 관련 일을 잘 하는 이미지를 갖게 되었습니다. 이미지 뿐만 아니라 저는 실제로도 포토샵, 영상 편집 등에 관심이 많아 직접 만든 결과물들을 친구들에게 보여주곤 했습니다. 고등학교 3학년 때는 합창대회 중 뒤에 깔릴 영상을 직접 제작하는 등 필요에 의한 작업을 많이 하였습니다. 교무실에 불러갈 때 역시 선생님들은 제게 포토샵 작업을 부탁하셨고 저는 가끔씩 그들의 자리에 앉아 포토샵 작업을 해드리곤 했습니다. 인생에서 가장 존경했던 선생님 한 분은 그런 저를 성장시키기 위해 일부러 과제 형식으로 작업을 맡기셨고 저는 그런 과정에서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해결해나가는 법을 배웠습니다. 그때의 경험으로 의지와 실행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생각합니다.

[성격의 장단점]

저에게는 어려서부터 갖고 있던 강박증이 하나 있습니다. 바로 시간 강박. 내가 정한 시간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초조하고 불안해지는 강박입니다. 어릴 때부터 갖고 있던 이 고질적인 강박증은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. 이러한 강박이 저에게는 단점이 되던 날이 있습니다. 공부를 할 때 정해진 시간 동안 할 일을 마치지 못하면 스스로를 자책하고 한탄하는 일이 잦았습니다. 그런 행위는 제 자신을 갉아먹었고 보다 나은 사람이 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들곤 했습니다. 아무래도 이 강박증은 시간에 한정된 강박이 아니라, 내 자신이 더욱 완벽한 사람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우려 나온 갈증이 아닐까 싶습니다.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저는 이 강박이 단점만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. 자격증 시험이나 학과 시험을 준비할 때, 또는 과제를 할 때도 저는 이 강박을 장점으로 이용해 보다 체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었고 그 덕분에 마감 시간에 쫓기거나 초조해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. 저는 앞으로도 이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해나갈 것이며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계기로 성장할 것입니다.

[전공 선택 이유와 적성]

저는 많은 이들에게 버디버디 같은 존재가 되고 싶었습니다. 버디버디는 한때 대한민국 학생들의 많은 사랑을 받은 메신저 서비스입니다. 저는 그 서비스의 열렬한 회원이었으며 친구들의 관심을 끌어내기 위해 무수히 많은 게시물을 올렸습니다. 초등학생 시절의 저는 다른 회원들처럼 예쁜 배너를 만들어 올리고 싶었고, 그게 포토샵을 처음 배우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. 친언니에게서 어깨너머로 배운 포토샵은 곧 저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친구가 되었고, 이와 같은 분야를 더 깊게 배우고 싶단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. 시간이 흐르고 고등학생으로 성장한 저는 어릴 때 사용하던 버디버디를 떠 올리며 누군가에게 희망적인 계기를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생각했습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면모를 다져야 한다는 걸 알았기에 관련 전공으로 진학을 했습니다. 4년 동안 여러 과제와 프로젝트, 캡스톤디자인을 경험하면서 풍부한 전공 지식을 쌓았고 혼자서도 프로젝트를 계획할 만큼 놀라운 추진력과 흥미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[입사 후 포부]

저는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. 배움에는 한계가 없고 저 역시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늘 배우고 성장해나가려 하는 편입니다. 그렇기에 저는 트렌드가 빨리 변하는 직종인 이 분야에서 신기술에 뒤처지지 않고 따라잡을 준비가 되어있습니다. 뿐만 아니라 기업에서 사용 중인 기술을 빠르게 습득할 수 있으며 언제나 배우고자 하는 자세를 갖고 있겠습니다. 제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 프론트엔드입니다. 대학교 4학년 말, 이 쪽 분야로의 진출을 집중적으로 계획하며 독학으로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. 그 과정에서 전혀 알지 못했던 리액트를 배우게 됐고, 지금은 혼자서도 간단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해 나갈 수 있을 정도로 리액트에 대한 지식과 역량을 길렀습니다. 이처럼 저에게는 필요한 언어나 라이브러리를 습득할 수 있는 실행력이 있으며 이러한 역량을 더욱 기르기 위해 입사 후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.